

시

김현경

시

잎의 사원

신작로 가로수 밑에 사바의 중생처럼
벼려져 있는 낯달맞이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배주시래기처럼 시들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가져와 화분에 심었더니
고마움의 표시인 양,
생기를 머금고 잎사귀가 되살아났다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니
색(色)의 향긋한 향기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부처님께서 펼치시는 향기로운 화엄의 세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드는 꽃잎 따라
깨어난 듯 만개한 잎, 잎들,
서로 합장을 하는 모습으로

점, 점, 점 번지는 푸른 눈망울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꽃의 향기
몸속에 암세포처럼 박혀있는 사리를 주워 들며
대자대비한 미소를 지어본다

매일 합장해서 드릴 공양이 생겼다



약력

- ▲ '열린시학', '시조시학' 등단
- ▲ '문예사조' 동시 등단
- ▲ 동천문학 회원, 열린시학 회원
- ▲ 광주문화인협회 회원, 전남시조협회 회원



윤영숙

강가에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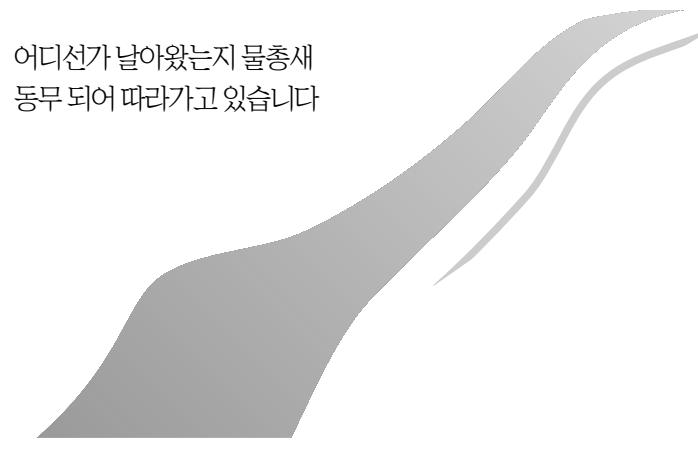
차츰,
할말을 쓸 수 없는 날에
유유히 내 생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둑에 나와
그대에게 편지 한 장 띄워 보냅니다

내 어릴 적 놀던 그강둑,
언제나 햇빛은 눈 부셨었지요

나의 손바닥 위에 흘연히 그햇빛 한 줌
부서지는 아픔에 소소리 바람 입맞춤하고
그걸 바라보느라 어느덧 해 저물었습니다

강 건너 빙집에는 불이 켜지고
머리 위엔 노을이 걸릴 때
강둑에 매어 놓은 나룻배 한 척
황혼 따라 노 저으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이 왔는지 물총새
동무 되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약력

- ▲ '시학과 시' 시 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 ▲ '현대문예' 시조 부문 문학상 수상
- ▲ 광주문화인협회 이사
- ▲ 호남시조시인협회 이사
- ▲ 현대문예 이사

시

스카프 생존기

묶여있는 너를 본다
바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새김질하며
소리를 부여잡고 흔들리는 네 앞에서
목이 짚기는 행간을 읽으며
나는 매듭의 매무새를 다듬는다

어디쯤 온 것일까

너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람에 하소연을 늘어놓고
상투적인 몸짓 언어를 탓하며
나는 무심한 시선을 목에 두른다

하녀의 치맛자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건 모두 사치라고 외치던
디올의 CEO가 생각하는 밤

바람이 스카프를 잠재운다

조필



약력

- ▲ 광주문화인협회 회원
- ▲ 광주디카시인협회 대표
- ▲ 디카시집 : '바다로 간 피사의 사탑', 'A보다 더 블디'

수필

내 유년의 여름

느닷없는 소낙비가 한바탕 용골차게 쏟아
지더니 소음의 도시 저 편에 일곱 색깔 무지
개가 살풋 걸려 있다. 그순간, 무지개 속으로
상큼했던 내 유년의 여름이 하염없이 흘러가
고 있었다. 동구 밖, 당산나무, 신작로, 강나
루, 장광 뒤의 하얀 접시꽃. 그것들이 어우러
져 설핏거리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집 골목
안으로 접어들었다.

사시사철 빛바랜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던
집. 그 문턱에 들어서면 감 익는 냄새가 솔솔
묻어나고 삼밭 그늘에서 긴 혀를 늘어뜨리

고 있던 황구란 놀이 살래살래 꼬리를 흔들
며 다가오곤 했다. 책가방을 헛마루에 던져
두고 뒤란으로 돌아가 샘물 한 뒷박 떠 벌컥
벌컥 들이켜고서 한바탕 목물을 하고 나면
얼얼하면서 온몸에 새 피가 찍 일었다. 수건
을 걸치고 마루에 오르면 어머니는 잽싸게
미솟가루 한 대접을 너끈히 괴어 소반에 받
혀 왔다. 그 고소하고 찐득한 맛을 무엇에 비
할까.

마음이 한결 넉넉하여 져 낮잠 한소끔 정
하려고 초석 깔린 대청에 드러누우면 매미
들의 울음소리는 왜 그리도 성화였던가. 담
장 옆 돌배나무, 감나무 안에서 귀가 명명
하도록 맴맴…… 찌르륵, 논스톱으로 합

장을 했다. 녀석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서
제법 가락까지 넣어 가며 가차게 울어댔다.
녀석들의 소리에도 사연은 있으리라. 단 일
주일의 생을 위해 7년 아니 17년이란 세월
을 유종으로 살아야 했던 인고의 날들. 그
끝에 탄생한 생명의 환희를 노래함인가. 아
무튼 내 고향 7월은 매미 소리로부터 시작
되고 끝이 난다. 하여, 녀석들은 무더운 여
름날의 대명사요, 내 마음의 영원한 노스탈
지이다.

그곳,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
오르는 영상. 하얀 신작로가 열리고 하늘로
치솟던 마루나무 밑을 지나 비틀비틀 자전거
를 곧잘 타던 순이의 얼굴이 보이며 문학소

녀 진이의 마른 얼굴도 보인다. 그들은 어디
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둠이 내리
면 30족 전등불이 켜지고 불빛을 따라 극성을
부리던 하루살이, 모기떼들, 쑥대공을 말려
피운 모깃불 냄새가 여름 내내 온 집안에 알
썩했다. 평상 위에 누워 저다보는 저녁 하늘
은 왜 그리 아름답던지, 별자리를 찾으며 어
머니가 들려준 먼 옛날이야기에 귀를 기울이
다가 잠이 들곤 했던 날들이 어제이듯 새롭
기만하다.

세월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
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은 밤마다 가슴 속으
로 파고들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취
해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내 유년의 여름은 그

렇듯 꿈과 사랑과 낭만으로 아롱져있다. 평
생을 두고 소낙비 그친 오후의 반짝임과 일
곱 색깔 무지개가 오늘처럼 영롱히 떠올라
시도 때도 없이 내 가슴에 아롱다辱 사색의
무늬를 만들곤 한다.

악력

- ▲ '수필과 비평' 등단(1992)
- ▲ 광주문화인협회 이사, 남도수필
회장 역임
- ▲ 수상 : 대한문학상, 황희문화예술
상
- ▲ 저서 : '꽃들의 반란', '봄날은 간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호지국 574-3745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남수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고흥지사 061)832-6290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